

두로의 잊힌 칠십 년

Jeff Pippenger

2023-08-12

두로의 잊힌 칠십 년

모든 예언자들은 세상의 종말을 가리킨다.

옛 선지자들 각자는 자기 시대를 위해 말한 것보다 우리를 위해 말한 것이 더 많았으므로, 그들의 예언은 우리에게 적용된다.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고, 또한 세상 끝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것들이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11.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에게 전해진 것들을 섬겼으니, 그것들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바라는 것들이라.'

베드로전서 1:12. ...

성경은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해 그 보화를 쌓아 한데 묶어 두었다. 구약 역사에 나타난 모든 위대한 사건들과 엄숙한 일들이 되풀이되어 왔으며, 지금도 이 마지막 날들에 교회 안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선택된 기별, 제3권, 338, 339.

성경의 모든 책은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을 맺는다.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의 모든 책이 서로 만나고 끝을 맺는다." 사도행전, 585.

지구의 거주자들을 위한 마지막 경고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 그가 힘 있는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고, 모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모든 민족이 바벨론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은 바벨론의 사치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부하게 되었다. 요한계시록 18:1-3.

"큰 바벨론"이라는 표현은 로마 가톨릭교회를 상징하며, 이사야 23장에서는 "큰 바빌론"이 두로로 상징된다.

두로에 관한 경고. 다시스의 배들아, 울부짖으라. 집도 없고 들어갈 곳도 없도록 그것이 황폐하게 되었음이라. 깃뎀 땅으로부터 그 일이 그들에게 드러났도다. 섬의 거민들아, 잠잠하라. 바다를 건너다니는 시돈의 상인들이 너희를 풍성하게 하였도다. 큰 물들로 말미암아 시홀의 씨, 곧 강의 수확이 그녀의 수입이 되었고, 그녀는 열국의 장터가 되었도다. 시돈아, 수치를 당할지어다. 바다가 말하였음이니, 참으로 바다의 세력이 이르되, 나는 해산하지도 아니하였고 자식도 낳지 아니하였으며, 청년을 기르지도 아니하였고 처녀들을 키우지도 아니하였다 하였도다. 이집트에 관한 소식과 같이, 두로에 관한 소식으로 그들이 크게 아파하리라.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섬의 거민들아, 울부짖으라. 이것이 너희의 즐거워하던 성읍이냐? 그 옛날부터 이어온 오랜 도시가 아니냐? 그녀의 발이 그녀를 멀리 떠돌게 하리라. 왕관을 씌우는 성, 그 상인들이 방백들이요 그 무역상들이 땅의 존귀한 자들인 두로를 대적하여, 누가 이

계락을 세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를 계획하셨으니, 모든 영화의 교만을 더럽히시고, 땅의 모든 존귀한 자들을 멸시 가운데 두려 하심이라. 다시스의 딸아, 네 땅을 강 같이 지나가라. 더는 매는 줄이 없도다. 그가 바다 위에 손을 펴시고 나라들을 흔드셨도다. 여호와께서 상업의 성에 명령하여, 그 견고한 곳들을 멸하라 하셨도다. 또 이르시되, 너 학대받는 처녀, 시돈의 딸아, 네가 다시는 즐거워하지 못하리라.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이 백성은 본래 없었으나, 앗수르가 광야에 사는 자들을 위하여 그것을 세웠느니라. 그들이 그 망대를 세우고 그 궁전들을 세웠으나, 그가 그것을 폐허로 만들었도다. 다시스의 배들아, 울부짖으라. 너희의 힘이 황폐하게 되었도다. 그 날에 두로가 칠십 년 동안, 한 왕의 날수대로 잊혀지리라. 칠십 년이 끝나면 두로가 창녀같이 노래하리라. 수금을 잡고 성읍을 두루 다니라, 잊혀진 창녀여. 달콤한 가락을 연주하고 많은 노래를 불러, 네가 기억되게 하라. 칠십 년이 끝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찾아오시리니, 그녀가 다시 그 샅으로 돌아가, 지면 위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음행하리라. 그녀의 상품과 그 샅이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것을 쌓아 두거나 저장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상품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들을 위하여 배불리 먹게 하며, 오래 입을 옷이 되게 하리라. 이사야 23:1-18.

화이트 자매는 이렇게 썼다: "구약 성경 역사상의 모든 위대한 사건들과 엄숙한 일들이 이 마지막 날들에 교회 안에서 되풀이되어 왔고,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

이사야 23장은 유엔, 교황권, 미합중국, 그리고 이슬람의 예언적 관계를 다룬다. 이러한 진리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장의 특정한 상징들이 영감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 상징들이 정의되고 나면 사건의 전개는 비교적 분명하다. 이 장에서 정의되어야 할 상징들은 다음과 같다:

짐, 두로, 창녀, 앗수르인, 갈대아 사람의 땅, 탑과 궁전, 다시스, 시홀의 씨, 깃딤의 땅, 시돈, 상인들의 도시, 애굽의 소식과 두로의 소식, 울부짖음, 딸, 칠십 년, 한 왕의 날들, 망각, 그리고 기억

1절의 "burden"이라는 단어는 두로 왕국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가리킨다.

짐: H4853 - H5375에서 유래; 짐; 구체적으로는 조공, 또는 (추상적으로) 운반; 비유적으로는 발언, 주로 심판, 특히 노래; 정신, 욕망: - 짐, 가져가다, 예언, X 그들이 정하다, 노래, 조공.

두로에 관한 '경고'는 성경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최후 심판이 지목되는 많은 본문들 가운데 하나다. '경고'는 용례와 정의상 예언, 특히 멸망의 예언을 뜻한다. 이사야서에는 이런 '경고'가 열한 번 나오며, 또 어깨에 메는 짐을 가리키는 의미로는 여덟 번 쓰인다. '경고'가 멸망의 예언으로 나타나는 열한 곳은 이사야 13:1; 15:1; 17:1; 19:1; 21:1, 11, 13; 22:1; 30:6, 그리고 물론 두로의 경고가 나오는 23장이다. 마지막 때에 어떤 세력이 대표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이사야의 멸망의 예언들을 모두 함께 놓고 살펴보는 것은 가치가 있다. 열한 개의 멸망 예언을 한꺼번에 다루기는 어려우므로, 23장의 맥락을 세우기 위해 각 멸망 예언을 간략히 정의해 두겠다.

제13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예언은 세상 종말의 현대 바벨론이며, 이는 요한계시록 제17장에도 묘사된 로마의 음녀이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나와 말하며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의 주민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가 나를 영으로 광야로 데려갔더니, 내가 보니 한 여자가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주홍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하였으며, 그 손에 가증한 것들과 그녀의 음행의 더러움이 가득한 금잔을 들고 있었다. 또 그녀의 이마에는 이름 하나가 기록되어 있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 요한계시록 17:1-5.

나는 잠시 주제를 벗어나야 하겠다. 두로에 대한 예언을 연구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예언적 역사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그것과 대응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어린 양 같은 짐승의 한 뿔이 미국의 정부이며, 암흑기에서 나온 개신교가 다른 한 뿔이었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미국의 개신교인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시점에 개신교의 그 뿔은 밀러파 재림운동이 되었다. 그렇게 전제가 갖추어지면, 우리는 개신교의 뿔의 역사와 공화주의의 뿔의 역사가 서로 병행하며 상응하는 예언적 특징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결국 그들이 같은 짐승 위에 있다는 사실이 두 뿔이 서로 동시대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나는 미국에서 교회와 국가의 뿔이 어떻게 평행하는지 그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이겠다. 그 둘은 각자의 방식으로 '잇는다'.

이사야 23장은 교황권이 칠십 년 동안 잊혀질 것이라는 예언적 시점을 지적하며, 그 상징적인 칠십 년 동안 사람들은 교황권을 잊고 암흑기가 왜 암흑기라 불리는지도 잇는다. 개신교의 '뿔'로 불린 세력이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될 때 내세운 표어는 '성경, 오직 성경'이었다. 그들은 성경이 교황권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 준다는 사실을 잊었다. 또 자신들에게 맡겨졌고 자신들이 가장 열렬한 수호자라고 자임하던 그 거룩한 문서에 담긴 메시지도 잊어버렸다.

말씀을 이해하는 데 혼란에 빠져 적그리스도의 의미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신을 적그리스도의 편에 두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세상과 동화될 시간이 없다. 다니엘은 자기 분깃을 얻어 자기 자리에 서 있다. 다니엘과 요한의 예언들은 이해되어야 한다. 그 예언들은 서로를 해석한다. 그것들은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할 진리를 세상에 전한다. 이 예언들은 세상에서 증거가 되어야 한다. 이 마지막 때에 그 성취를 통해 스스로를 설명할 것이다. 크레스 컬렉션, 105.

마찬가지로,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공화정의 뿔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했지만, 미합중국의 시민들 또한 그들에게 맡겨진 신성한 문서를 잊어버렸다. 그 신성한 문서는 미합중국 헌법이며, 국민을 위해 설계된 그 정부의 표어는 정교분리였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리고 자신들이 수호자라고 자처해 온 그 헌법의 메시지를 잊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한다. 로마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그레고리 7세와 이노센트 3세의 원칙은 지금도 여전히 로마 가톨릭 교회의 원칙이다. 그리고 그 교회가 권력만 지닌다면, 지나간 세기들에서 그랬던 것만큼이나 지금도 그것들을 같은 기세로 실행에 옮길 것이다. 개신교인들은 일요일을 높이는 일을 수행하는 데

로마의 도움을 받아들이자고 제안할 때,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거의 알지 못한다. 그들이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열중하는 동안, 로마는 자신의 권력을 재건하고 잃어버린 지배권을 되찾으려 한다. 만일 미국에서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동원하거나 통제할 수 있고, 종교적 의식과 규례가 세속 법으로 강제될 수 있으며, 요컨대 교회와 국가의 권위가 양심을 지배하도록 하자는 원칙이 한 번만 확립된다면, 이 나라에서 로마의 승리는 보장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임박한 위험을 경고해 왔다. 그러나 이 경고를 외면한다면, 개신교 세계는 로마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올무를 벗어나기에는 너무 늦은 때에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로마는 조용히 권세를 키워 가고 있다. 그 교리들은 입법의 전당과 교회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로마는 높고 거대한 구조물들을 쌓아 올리고 있는데, 그 은밀한 구석구석에서는 과거의 박해가 되풀이될 것이다. 로마는 눈에 띄지 않게,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 때가 와서 일격을 가하게 될 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력을 강화하고 있다. 로마가 원하는 것은 유리한 고지뿐이며, 그것은 이미 로마에게 주어지고 있다. 우리는 머지않아 로마 세력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며, 또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누구나 그로 인해 비난과 박해를 당할 것이다. 위대한 논쟁, 581.

1950년 이전에 출판된 어떤 사전이든 찾아 요한계시록 17장의 '주홍빛 여인'이나 그와 비슷한 표현을 찾아보면, 그 1950년 이전 사전들은 모두 로마 가톨릭 교회를 요한계시록 17장의 창녀로 규정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뿔 가진 땅의 짐승으로 묘사된 미국은, 그것이 개신교의 뿔이든 공화주의의 뿔이든, 자기 과거를 잊어버린다. 이 두 제도는 교황권의 종교적 폭정과 그녀를 지지한 왕들의 정치적 폭정에 대한 항의에서 비롯되었는데,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그녀와 '음행한' 왕들이다. 이사야 23장을 다루기 전에, 이사야가 '멸망의 예언'으로 지적인 나머지 열 가지 경우를 간략히 개관하겠다. 열한 개의 '경고'가 모두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13장은 "마지막 때"의 바벨론에 대한 경고이다. 바벨론은 말세에 가톨릭 교회에 의해 통제되고 지휘되지만,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세 가지 권세로 이루어져 있다. 현대 바벨론에 대한 13장의 파멸의 예언에는 세 가지 권세가 제시되는데, 그것은 바벨론, 루시퍼, 앗수르이며, 각각 짐승(앗수르), 용(루시퍼), 거짓 선지자(바벨론)을 대표한다. 앗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두 황폐케 하는 권세였고, 먼저 앗수르가 와서 북방의 열 지파를 포로로 끌고 갔으며, 그 후에 바벨론이 유다의 남쪽 두 지파를 사로잡아 갔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몰아냈도다. 처음에는 앗수르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땅을 벌하리니, 내가 앗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하리라. 예레미야 50:17, 18.

먼저 앗수르가 이스라엘의 북쪽 열 지파를 포로로 끌고 갔고, 그 후 바벨론이 남쪽의 두 지파로 이루어진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갔다. 이 두 차례의 포로는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의 성취였다. 레위기의 '일곱 때'는 윌리엄 밀러가 발견한 최초의 '때의 예언'이었으며, 앗수르가 북왕국을 사로잡았을 때 2,520년 동안 계속되는 흩어짐이 시작되었음을

지적한다. 그 기간은 기원전 723년에 그들이 포로가 되면서 시작되었고 1798년 '끝의 때'에 끝났다. 남쪽 지파들은 기원전 677년에 바벨론에 의해 사로잡혀 유다를 향한 '일곱 때'가 시작되었고, 그 기간은 다니엘 8장 14절의 2300년 예언과 같은 시점인 1844년 10월 22일에 끝났다. 앗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역에 대한 동일한 목적의 징벌을 수행했지만, 그 징벌은 먼저 앗수르에 의해, 그 다음에는 바벨론에 의해 시행되었다.

13장의 세 권세 사이의 예언적 관계에서 바빌론은 아시리아의 표상이다. 이는 바빌론이 뒤이어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같은 일을 했기 때문이다.

제15장에서 모압에 대한 경고는 개신교 교회들을 향한 것이다.

모압에 대한 이 묘사는 모압과 같아진 교회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신실한 파수꾼으로서 자기들의 의무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어둠의 권세를 억누르며, 우리 세상에서 진리와 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사용하는 가운데 하늘의 지성적 존재들과 협력하지 않았다. 그들은 진리를 알고 있으나,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않았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주석, 제4권, 1159쪽.

타락한 개신교회는, 둘째 천사의 기별 앞에서 나머지 개신교 진영이 달아났을 때에도 주님과 함께 걷기를 계속하던 그 교회다. 모압은 재림주의, 곧 타락한 개신교의 뿌리이다.

제17장은 다마스쿠스에 관한 것이며, 다마스쿠스는 빼앗기는 도시로 규정된다. 도시는 나라를 상징하고, '말세'에 빼앗기는 나라는 미국이다.

제19장은 유엔과 전 세계를 대표하는 이집트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다.

21장에서 이어지는 세 가지 멸망의 예언은 남쪽의 끔찍한 사막 땅과 두마, 아라비아를 향한 것이다. 이 세 가지 멸망의 예언은 요한계시록 8:13의 세 화와 일치하여 이슬람을 가리킨다.

제22장의 멸망의 예언은 일요일 법령이 시행될 때 라오디게아 재림교인들이 빌라델비아 재림교인들과 분리되는 것을 묘사한다.

그리고 이사야서 30장에서 우리는 남방의 짐승들에 대한 경고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라오디게아 재림교인들의 반역에 대한 두 번째 예증이다. 이사야서의 모든 경고를 함께 모아 보면, 사실상 '마지막 때'의 모든 예언적 등장인물을 다 다루게 된다. 나는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 미국의 역사가 1798년부터 일요일 법령까지 통치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사야서 23장을 선택한다.

"각 고대 예언자는 자기 시대를 위한 것보다 우리 시대를 위한 뜻으로 더 많이 말했으며, 그들의 예언은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이유로, 모든 예언적 발언은 세상 종말의 사건들을 다룬다. 이 진리에 더해 "성경의 모든 책이 요한계시록에서 만나고 끝난다"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세상 종말의 사건들에 관한 예언적 증언을 서로 맞추는 기준점은 요한계시록이 된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우리는 땅의 왕들과 음행하는 큰 음녀와 그녀의 최후 심판을 본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왕들이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다.
요한계시록 17:1-2.

예언자들은 결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또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에게 복종하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평화의 하나님이시니라.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고린도전서 14:32, 33.

세상 종말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심판," 곧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의 음행의 포도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취하게 한" 그 큰 음녀는, 이사야가 "한 왕의 날들," 곧 예언의 칠십 년 동안 잊혀지는 "창녀"로 묘사한 바로 그 존재다. 그 칠십 년이 끝나면 두로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더불어 음행할 것이다." 이사야의 창녀는 요한의 큰 음녀다. 이사야의 창녀와 요한의 음녀는 로마 가톨릭교회를 가리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자가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아내들아, 주께 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너희 아내들을 사랑하라. 이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물의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그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되 점이나 주름이나 그와 같은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느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한 이는 없고, 도리어 그것을 양육하고 돌보나니, 주께서도 교회를 그렇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요,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22-33.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언에서 여인으로 상징된다고 밝힌다. 그러므로 예언에 나오는 여인은 교회를 뜻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다. 거룩하지 않은 교회는 거룩하지 않은 여인으로 묘사되며, 이사야는 창녀로, 요한은 음녀로 지칭한다. 그들은 교황권을 음녀로, 하나님의 교회를 처녀로 묘사한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를 두고 질투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 하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1:2

하나님의 교회는 처녀로 상징될 뿐만 아니라 한 남편에게만 정혼되어 있다. 두로와 요한의 큰 음녀는 땅의 왕들과 음행한다. 가톨릭 교회는 한 남자와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남자들과 관계한다. 다니엘은 그 왕들이 곧 나라들임을 알려 준다.

이것이 그 꿈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해석을 왕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자손들이 사는 모든 곳에서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도 왕의 손에 넘겨 주시고, 그 모든 것 위에 왕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왕은 곧 그 금 머리입니다. 왕 후에는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또 셋째로 놋의 나라가 일어나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나라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쇠가 모든 것을 산산이 깨뜨리고 굴복시키듯이, 그 나라도 이 모든 것들을 산산이 깨뜨리고 짓밟을 것입니다. 다니엘 2장 36-40절.

다니엘서 2장에서는 성경 예언에 나오는 왕국들이 밝혀지고 설명된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느부갓네살이 바로 금으로 된 머리라고 알려 준다. 금 머리는 한 왕을 가리키지만, 왕은 한 왕국을 대표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언적 70년의 끝에 땅의 모든 왕들과 음행하는 큰 음녀다. 그 왕들은 사람들을 상징하고, 두로는 부정한 여자다. 여자는 교회, 음녀는 거룩하지 않은 교회이며, 남자는 왕, 왕은 왕국을 뜻한다. 여자는 교회이고 왕은 국가다. 이 두 존재의 불법적 관계는 영적 음행을 상징한다.

미국 헌법은 이 두 제도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명문화한 신성한 문서다. 우리가 아직 두로를 로마 가톨릭 교회로 규정하는 일을 끝내지는 않았지만, 이 시점에서 남자와 여자, 곧 교회와 국가의 상징성을 설명해 주는 이사야 23장의 또 다른 상징을 다루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갈대아인의 땅을 보라. 이 백성은 앗수르인이 광야에 사는 자들을 위하여 그것을 세우기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곳의 망대들을 세우고 그곳의 궁전들을 높이 세웠으나, 그가 그것을 폐허로 만들었다. 이사야 23:13.

그 구절에서 앗수르 사람은 갈대아의 나라를 세우고 "망대"와 "궁전"을 모두 세웠다. 앗수르 사람은 니므롯을 상징하고,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비 종교 지도자들을 나타낸다. "망대"는 교회를 상징한다. 예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화이트 자매는 그 비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비유에서 집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은 유대 민족을, 그리고 울타리는 그들의 보호가 되었던 신성한 율법을 나타냈다. 망대는 성전을 상징했다." *Desire of Ages*, 596.

앗시리아인은 교회(탑)와 "궁전"을 세운 갈대아 사람들의 나라를 창건했다. "궁전"은 "왕"을 상징하고, 그 "왕"은 다시 왕국을 상징한다. 왕국은 또한 도시로 상징되기도 한다.

그들이 말하였다.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되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어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1:4.

앗시리아인이 세운 "탑"과 "궁전"은 니므롯이 세운 "도시"와 "탑"이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의 거리에 놓여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 불리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요한계시록 11:8.

영감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1장의 "큰 성"이 프랑스 혁명 시기의 프랑스 왕국을 상징한다고 알려준다.

거리에서 증인들이 살해되고 그들의 시체가 버려져 있는 그 '큰 성'은 '영적으로' 애굽이다. 성경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애굽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대담하게 부인하고 그의 명령에 거역하였다. 하늘의 권위에 대해 애굽

왕만큼 노골적이고 오만무도한 반역을 감행한 군주는 없었다. 주의 이름으로 모세가 그에게 전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바로는 교만하게 대답하였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또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5:2, A.R.V. 이는 무신론이며, 애굽이 상징하는 그 나라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요구를 이와 같이 부인하고, 동일한 불신과 반항의 영을 드러낼 것이다. 그 '큰 성'은 또한 '영적으로' 소돔에 비유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소돔의 부패는 특히 음란함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죄는 또한 이 성구의 요건을 성취할 그 나라의 대표적 특징이 될 것이었다.

선지자의 말에 따르면 1798년이 되기 조금 전에 사탄적 기원과 성격을 지닌 어떤 권세가 일어나 성경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일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두 증인의 증언이 침묵당하게 될 그 땅에서는 바로의 무신론과 소돔의 방탕함이 드러날 것이다.

이 예언은 프랑스 역사 속에서 매우 정확하고 놀라울 만큼 두드러지게 성취되었다. 혁명 기간인 1793년에, "문명 사회에서 태어나 교육받았고, 유럽에서 가장 훌륭한 민족들 가운데 하나를 통치할 권리를 자처하던 사람들이 모인 회의가, 인간의 영혼이 받아들이는 가장 엄숙한 진리를 부정하고, 신에 대한 믿음과 예배를 만장일치로 포기한다는 내용을 한목소리로 외치는 것을, 세계는 역사상 처음으로 들었다." — Sir Walter Scott, *Life of Napoleon*, vol. 1, ch. 17. "프랑스는, 국가로서 우주의 창조주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는 사실에 관해 신빙성 있는 기록이 남아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이다. 영국과 독일, 스페인 등지에는 신성모독자도 많았고 불신자도 많았으며, 지금도 계속 존재한다. 그러나 프랑스는, 입법회의의 결의에 의해 신은 없다고 선언한 단 하나의 국가로서, 그리고 그 발표를 받아들이며 수도의 전 주민과 다른 지역의 압도적 다수—남녀를 불문하고—가 기뻐 춤추고 노래한 국가로서, 세계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 *Blackwood's Magazine*, November, 1870. 대쟁투, 269.

요한계시록 11장의 "큰 성"은 자국의 입법의회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법령"을 통과시킨 프랑스라는 나라였다. 그 법령은 바로의 반역으로 상징되는 무신론의 표현이었다. 큰 성은 하나의 왕국, 곧 "나라" 또는 "국가"를 뜻한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프랑스는 이집트와 소돔이라는 두 상징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렇게 들었다. "이것은 무신론이며, 이집트로 대표되는 그 나라 역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요구를 유사하게 부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불신과 반항의 같은 정신을 드러낼 것이다. '그 큰 성'은 또한 '영적으로' 소돔에 비유된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소돔의 부패는 특히 음란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프랑스라는 큰 도시 또는 나라는 상징적으로 한 나라(이집트)와 한 도시(소돔)로 나타나 있다. 이집트가 '목소리를 낼 것'이며, 국가가 말한다는 것은 교회 정치가 아니라 국정(정치)을 뜻한다. 이집트는 국가를, 소돔은 교회를 가리킨다는 상징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가의 '발언'은 그 나라의 입법 및 사법 당국의 행위이다." 대쟁투, 442.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요한은 프랑스 혁명의 사건들을 예언적 상징으로 제시한다. 실제 혁명은 그 장에서 요한의 예언이 타당함을 입증하는 충분한 역사적 증거를 제공했다. 요한이 예언했고, 프랑스 혁명이 그 예언을 성취했으며, 이어서 그 예언과 그 역사적 성취 모두가 세상 끝에 일어날 사건들을 지목하고 그와 병행한다. 그때에는 다시금 부패한 국가가 부패한 교회와 결합한다. 물론, 그 불경한 결합 뒤에는 피의 대학살이 뒤따른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큰 성이다.

그가 성령으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큰 성,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 주었다. 요한계시록 21:10.

여기에서 제시된 신랑의 오심은 혼인에 앞서 일어난다. 그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국을 받으시는 것을 나타낸다. 그 왕국의 수도이자 대표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 어린양의 아내'라고 불린다.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였다. '이리 오라. 내가 네게 신부, 어린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선지자는 말한다. '그가 나를 영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큰 성,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 주었다.' 요한계시록 21:9, 10. 대쟁투, 426.

니므롯의 반역은 그가 탑과 도시를 세운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모든 선지자들이 세상의 끝에 관해 말했기 때문에 세상의 끝에 일어날 교회와 국가의 결합을 상징한다. 니므롯의 반역은 또한 루시퍼의 반역의 연장이었다. 루시퍼의 욕망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국가 둘 다를 장악하는 것이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네가 어찌 땅에 짝혀 넘어졌는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또한 북쪽 끝에 있는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구름들의 높은 곳 위로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였도다. 이사야 14:12-14.

이사야가 루시퍼의 비밀스러운 마음의 욕망, 곧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려는" 욕망을 드러내면서, 그는 루시퍼가 서로 분명히 다른 두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의 별들 위에 있는 보좌"를 "높이 올리기를" 원하고, 또한 "북쪽의 가장자리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기를" 원한다.

왕좌는 왕의 권위, 또는 국가 권위를 상징하며, '북편'은 하나님의 교회다.

고라 자손을 위한 노래와 시. 여호와와는 위대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성읍, 그의 거룩하신 산에서 크게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위치가 아름답고 온 땅의 기쁨인 시온 산은 북쪽 편에 자리한, 큰 왕의 성읍이다. 그 성읍의 궁전들에서 하나님은 피난처로 알려져 있다. 시편 48:1-3.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로서 하나님의 정치적 보좌를 상징하며, 또한 "그의 거룩함의 산", "북쪽의 가장자리"로 불리며 하나님의 종교적 보좌를 상징한다. 태초부터 사탄의 반역과 전쟁은 그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국가 모두를 지배하려는 욕망의 맥락에서 묘사된다. 그 후 사탄은 니므롯의 반역을 주도했으며, 그가 갈대아인을 위해 세운 땅은 니므롯이 탑과 도시—곧 교회와 국가—를 건설한 땅으로 묘사된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말한 음녀와 요한이 말한 큰 음녀가 땅의 왕들과 음행할 때, 예언은 예언적 칠십 년이 끝날 때 로마 가톨릭 교회와 땅의 왕들 사이에 거룩하지 않은 관계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사야의 예언은 23장에서 음녀 두로의 심판을 묘사하고, 요한은 '큰 바벨론'으로 불리는 주홍빛 여인의 상징으로 같은 심판을 묘사한다. 같은 음녀에 대한 같은 심판의 세 번째 증언은 다음과 같다:

"요한계시록 17장의 여인(바벨론)은 '자줏빛과 붉은 빛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하고, 그 손에 가증한 것들과 더러움이 가득한 금잔을 가졌으며...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음녀들의 어미라'고 묘사된다. 선지자는 말한다: '내가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 것을 보았노라.' 또한 바벨론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선언된다. 요한계시록 17:4-6, 18.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교 세계의 군주들 위에 전제적 지배를 유지해 온 권세는 로마다." 대쟁투, 382.

두로는 '마지막 때'의 로마 가톨릭교회다. 그때 교황권은 나아가 땅의 왕들에게 유혹적인 노래를 불러 그들을 음행에 빠지게 할 것이며, 이는 예언적으로 교회와 국가의 결합을 의미한다.

그 날에 두로는 한 왕의 연한대로 칠십 년 동안 잊혀지리라. 칠십 년이 끝난 후에 두로는 창녀처럼 노래하리라. 이사야 23:15.

성경 예언에서 왕은 왕국을 가리키므로, 예언적 왕국이 칠십 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두로는 잊혀질 것이다.

그 날에 두로가 한 왕의 날수대로 칠십 년 동안 잊히게 되리니, 칠십 년이 끝나면 두로는 창녀처럼 노래하리라. 비파를 잡고 성읍을 두루 다니라, 잊혀졌던 너 창녀여; 고운 가락을 타고 많은 노래를 부르라. 그리하여 네가 기억되게 하라. 칠십 년이 끝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아보시겠고, 두로는 다시 자기의 삶을 따라 땅 위의 모든 나라들과 더불어 음행하리라. 이사야 23:15-17.

예언적 70년 동안 통치하는 한 왕국의 시기에 로마 가톨릭교회는 잊혀질 것이다. 그 70년의 끝에 교황권은 "감미로운 선율을 울리고, 많은 노래를 부를 것이다." 예언적으로 "노래"는 "경험"을 상징한다.

보좌 앞에 있는 수정 같은 바다, 불이 섞인 것 같은 그 유리 바다—하나님의 영광으로 얼마나 찬란한지—그곳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무리가 모여 있다. 시온 산 위에서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서 있는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받은 십사만 사천이다. 그리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렛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니,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들의 거문고로 타는 소리'이다.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십사만 사천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십사만 사천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다. 이는 그것이 그들의 체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다른 어떤 무리도 결코 가져 본 적이 없는 체험이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들은 살아 있는 자 가운데서 땅에서 옮겨 간 자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첫 열매'로 여김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15:2, 3;

14:1-5.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들은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일찍이 없던 환난의 때를 통과했고, 야곱의 환난 때의 고통을 견뎠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최후로 쏟아질 때 중보자 없이 서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를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황폐해지는 땅을 보았고, 해가 큰 더위로 사람들을 태울 권세를 가지는 것을 보았으며, 자신들도 고통과 굶주림과 목마름을 견뎠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는 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7:14-17. 대쟁투, 648.

"그의 성전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의 영광을 말하도다"(시편 29:9), 그리고 속량받은 자들이 부를 노래—그들의 경험의 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며, 주의 일들은 크고 놀라우십니다. 만세의 왕이시여,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나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5:3, 4, R.V. 교육, 308.

예언적 70년의 끝에 교황권은 "달콤한 선물을 만들고, 많은 노래를 불러서" 그녀가 "기억되도록" 할 것이다. 예언적 70년 동안 통치하는 왕국이 끝날 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신의 과거 역사에서의 경험을 세상에 상기시킬 것이다. 그 역사 속에서 그녀는 유럽의 왕들과의 관계에서 도덕적 권위로서 통치했다. 그 역사는 마땅히 암흑기로 규정되며, 교황권이 유럽의 왕들 위에 군림했던 그 역사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될 수 있는 모든 어둠은 이후의 모든 어둠을 낳은 바로 그 근본적인 행위에 귀속될 수 있다. 그 행위는 교회와 국가의 결합, 곧 유럽의 왕들과 가톨릭 교회의 결합이었다. 성경적 결혼에서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도록 되어 있지만, 그 역사에서 일어난 음행은 남녀 관계의 참된 질서가 거꾸로 된 것이었다.

칠십 년의 끝에, 교황권이 예언적으로 잊혀지는 기간 동안 세계를 지배하는 성경 예언에 등장하는 그 왕국이 종결될 때, 큰 위기가 닥칠 것이다. 그 왕국의 붕괴가 초래한 전 세계적 위기는, 그 붕괴로 인한 혼란한 시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도덕적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고, 암흑시대의 역사에서 보듯이, 가톨릭 교회가 세계에 알리기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연다.

왕국이 끝나고 교황권이 자신의 과거 경험, 곧 역사가들이 암흑이라고 부르는 그 경험을 노래할 때, 어떻게 그 암흑의 역사가 교황권이 세상의 왕들과 나누어 그들로 하여금 그녀와 음행하도록 설득할 메시지가 될 수 있겠는가? 커다란 위기 속에서 왜 과거 시대의 경험(그녀의 노래), 곧 예언적으로 잊혀지기 전에 그녀가 겪었던 경험이 세상의 왕들이 그들의 거대한 위기의 해법으로 그 암흑의 경험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논리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

로마 가톨릭주의를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 이들까지도 포함하는 큰 부류의 사람들은, 그 권세와 영향력에서 비롯될 위험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많은 이들은 중세에 만연했던 지적·도덕적 암흑이 그 교회의 교리와 미신, 그리고 압제의 확산을

촉진했으며, 근대의 더 큰 지성, 지식의 일반적 보급, 종교 문제에서의 관용 증대가 불관용과 폭정의 부활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계몽된 시대에 그런 상태가 존재하리라는 생각 자체가 조롱거리가 된다. 분명 이 세대 위에 지적·도덕적·종교적인 큰 빛이 비치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펼쳐진 페이지들을 통해 하늘로부터 온 빛이 세상에 비추어졌다. 그러나 더 큰 빛이 주어질수록 그것을 왜곡하고 거부하는 자들의 어둠은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한다면 개신교인들은 교황권의 참된 성격을 보게 되어 그것을 혐오하고 멀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 진리로 인도받기 위해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깨달음을 사랑하지만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양심을 잠재울 어떤 방도가 필요하여, 가장 영적이지 않고 자아를 가장 덜 낮추게 하는 것을 찾는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인 양 통용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방식이다. 교황권은 이런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매우 알맞다. 그것은 거의 온 세상을 포괄하는 인류의 두 부류, 곧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으려는 자들과 죄 가운데서 그대로 구원받으려는 자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바로 여기에 그 권세의 비밀이 있다.

지적 암흑이 극심했던 시대가 교황권의 성공에 유리했음은 이미 입증되었다. 지적 빛이 찬란한 시대 역시 그 성공에 똑같이 유리하다는 사실도 머지않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나간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에 대한 지식도 없었을 때, 그들의 눈은 가려졌고 수천 명이 발밑에 펼쳐진 그물을 보지 못한 채 올라가미에 걸려들었다. 오늘 이 세대에도 인간의 사변,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눈부신 광채에 눈이 멀어 버린 이들이 많다. 그들은 그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눈가리개를 한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적 능력이 창조주께서 주신 선물로 여겨지고 진리와 의를 섬기는 데 사용되기를 뜻하셨다. 그러나 교만과 야망을 품고 사람들이 자신의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일 때, 지성은 무지보다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경에 대한 믿음을 허무는 거짓 과학은, 암흑시대에 지식을 억제함으로써 그 세력 확장의 길을 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매혹적인 외형을 갖춘 교황권을 받아들일 길을 예비하는 데에서도 똑같이 성공적임이 드러날 것이다. 대쟁투, 572쪽.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안식일의 변경이 자신들의 교회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며, 바로 이 변화를 교회의 최고 권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내세운다. 그들은 한 주의 첫째 날을 안식일로 지킴으로써, 개신교인들이 신적 영역에서 입법할 수 있는 교회의 권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선언한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자신의 무류성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세상과 개신교 교회들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절하면서 그 교회가 만들어낸 가짜 안식일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사실상 이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들은 이 변경의 권위를 인용할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논리의 오류는 쉽게 드러난다. 교황주의자는 개신교인들이 스스로를 속이며, 이 사안의 사실들에 자진하여 눈을 감고 있음을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예리하다. 일요일 제도가 점점 더 지지를 얻어 갈수록, 그는 기뻐하며, 그것이 결국 전 개신교 세계를 로마의 깃발 아래로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안식일의 변경은 로마 교회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징 또는 표이다. 넷째 계명의 요구를 이해하고도 참된 안식일 대신 거짓 안식일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오직 그것을 명령한 그 권세에게 경배를 드리는 셈이 된다.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정하신 날을 대신하여 온 세상이 받아들인 교황권의 안식일이다.

그러나 예언에서 지정된 바와 같이 짐승의 표를 받을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시험의 때도 아직 오지 않았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제외하지 않고 모든 교회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다. 아무도 빛을 받고 넷째 계명의 의무를 깨닫기 전에는 정죄되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칙령이 공포되고, 셋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고 경고할 때, 거짓된 것과 참된 것 사이의 경계가 분명히 그어질 것이다. 그때에도 여전히 범죄를 계속하는 자들은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빠른 걸음으로 이 시기에 다가가고 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세속 권력과 연합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그것에 반대함으로써 가장 혹독한 박해를 견뎌야 했던 거짓 종교를 떠받치게 될 때, 교회와 국가의 결합된 권위에 의해 교황권의 안식일이 강제로 시행될 것이다. 국가적 배교가 일어날 것이며, 그것은 결국 국가적 파멸로만 끝나게 될 것이다. 성경 훈련 학교, 1913년 2월 2일.

이 장 자체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우리가 밝혀야 할 다섯 가지 상징을 이제 짚어보았다. 성경 예언에서 도시는 왕국을 의미하며, 이사야 23장에는 서로 밀접하지만 분명히 다른 두 왕국이 있다. 하나는 '면류관을 주던 성'이고, 다른 하나는 '무역의 성'이다. 마지막 때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을 지배하는 세력은 교황권이다. 그것이 면류관을 가진 왕국이다.

마지막 위기에 다가가면서, 주님의 기관들 사이에 조화와 연합이 존재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세상은 폭풍과 전쟁과 불화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한 우두머리, 곧 교황권 아래에서 사람들은 그분의 증인들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께 맞서기 위해 연합할 것이다. 이 연합은 대배도자에 의해 결속된다. 그는 진리를 대적하는 전쟁에서 자신의 대리자들을 하나로 묶으려 하면서, 진리의 옹호자들을 분열시키고 흩어 버리기 위해 일할 것이다. 질투와 악의적인 추측과 비방은 불화와 분열을 일으키도록 그가 부추기는 것이다. 증언, 7권, 182쪽.

왕관을 쓴 왕국은 두로이며, 그 뜻은 '바위'다. 이 장에서 두로는 그리스도를 모조하는 교황권을 나타낸다. 교황권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의 'anti'는 '대신하여'라는 뜻이다. 교황권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모조하려 하며, 두로라는 이름은 바위를 뜻한다. 이는 교황권이 '영원한 반석'의 모조품이기 때문이다.

누가 두로, 면류관의 성읍을 대적하여 이 계책을 세웠느냐? 그 상인들은 방백들이요, 그 장사꾼들은 땅의 존귀한 자들이 아닌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셨으니, 모든 영광의 교만을 더럽히시며, 땅의 모든 존귀한 자들을 멸시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스의 딸아, 네 땅을 강같이 지나가라; 더 이상 힘이 없다. 그가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시고, 나라들을 흔드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상업의 성읍을 치라 명하시라, 그 견고한 요새들을 멸하게 하셨도다. 이사야 23:8-11.

우리는 많은 증거를 통해 “왕국들의 흔들림”이 이슬람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한다. 이슬람은 열방을 분노하게 하고 열방을 흔드는 데 사용되는 능력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주께서 “땅의 모든 존귀한 자들”, 곧 그들의 “견고한 요새”가 파괴될 “상인들”과 “매매하는 자들”을 멸시 가운데 두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밝힌다. “상인의 성읍”과 “관을 씌우는 성읍”이 “하늘의 노여움을 불러일으켰고” 주께서는 그들의 “견고한 요새”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는 곧 경제를 가리킨다. 경제의 붕괴는 미국의 일요일 법령 이전에 일어난다. 왜냐하면 일요일 법령 이전에 미국 시민들은 “신적 은총과 현세적 번영”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은 일요일이 “엄격하게 시행”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여러 성경의 증언이 우리가 세계 경제의 엄청난 붕괴 직전에 와 있다는 데 일치한다. 그 붕괴는 일요일 법령 이전에 일어나는데, 마치 1837년의 붕괴가 1844년 10월 22일 이전에 일어났던 것과 같다.

그때 큰 미혹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이러한 재난을 일으킨다고 사람들을 설득할 것이다. 하늘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킨 그 부류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자체가 범법자들에게 끊임없는 책망이 되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모든 곤경을 탓으로 돌릴 것이다.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노하게 한다고 선포될 것이며, 이 죄 때문에 재난이 임했고 일요일 준수가 엄격히 강요되기 전에는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또한 넷째 계명의 요구를 제시하여 이로써 일요일에 대한 존중을 무너뜨리는 자들은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들로서,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과 현세적 번영을 회복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처럼 옛날 하나님의 종에게 가해졌던 비난이 동일하게 확고한 근거 위에서 다시 반복될 것이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았을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여호와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열왕기상 18:17, 18. 거짓 고발로 백성의 분노가 부추겨지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배도한 이스라엘이 엘리야를 대하던 것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다. 대쟁투, 590.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대면한 일은 일요일 법령을 대표한다. 교회를 위한 메시지는 “오늘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였다. 이 역사가 일요일 법령에서 반복될 때의 질문은 “어느 날을 선택할 것인가? 네가 선택하는 날이 네가 누구를 섬기는지를 나타낸다”이다. 갈멜산 이전에는 3년 반 동안 심한 가뭄이 있었다. 일요일 법령 이전에도 일련의 일요일 법령들이 있으나, 그것들은 “엄격히 집행되지는” 않았다. 일요일 법령과 관련된 원칙은 국가적 배도 뒤에는 국가적 파멸이 따른다는 것이다. 그 한 예로, 콘스탄틴은 321년에 일요일 법령을 제정했고, 그 직후 요한계시록 8장의 처음 네 나팔이 서방 로마 제국을 476년에 이르러 결말로 이끌기 시작했다. 콘스탄틴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일요일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조치와 동시에 제칠일 안식일에 대한 점진적 제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점진적 역사는 시민들이 일요일을 준수하도록 강요받거나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 결말에 이르렀다. 그것은 또한 미국에서 점증하는 일요일 입법의 결말이기도 하다. 일요일 예배 강제와 관련된 한 원칙은 “국가적 배도 뒤에는 국가적 파멸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의 실제 일요일 법령 이전에, 점증하는 일요일 법령의 집행이 하나님의 심판의 점증을 초래한다는 뜻이다. 각 제정은

그에 상응하는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시민들이 안식일 준수자들이 초래했다고 비난하는 심판들은 사실 점증하는 일요일 입법의 강제 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쟁투'에서 발췌한 한 단락을 포함시켰는데, 내가 그것에 '일요일의 진행'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그것은 '예언의 신'이라는 범주에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나타내셔서, 그분의 백성이 반대와 진노의 폭풍에 맞서 설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셨다. 앞으로 닥칠 사건들에 대해 경고를 받은 자들은, 환난의 날에 주께서 당신의 충성된 자들을 보호하실 것이라 스스로 위로하며 다가오는 폭풍을 태연히 기다리며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주를 기다리는 자들처럼, 한가한 기대 속에서가 아니라 변함없는 믿음으로 성실히 일해야 한다. 지금은 사소한 일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아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도, 사탄은 주의 백성이 긍휼이나 정의를 받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꾸미고 있다. 일요일 운동은 지금 어둠 속에서 은밀히 전진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참된 쟁점을 숨기고 있으며, 그 운동에 동참한 많은 이들조차 보이지 않는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지 못한다. 그 주장은 온건하고 겉으로는 기독교적인 듯 보이나, 그것이 말할 때에는 용의 영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는 임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힘닿는 대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의무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보여 줌으로써 편견을 누그러뜨리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는 그들 앞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 쟁점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조치에 대하여 가장 효과적인 항의를 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예언자는 말한다: '악인은 악을 행하리니, 악인 중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증언, 5권, 452쪽.

일요일 법제화를 위한 움직임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그 운동이 '어둠' 속에서 진행되고, 교황권이 '은밀하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자신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 세력을 강화하고 있다'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일요일 법제화를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14만 4천의 시험 과정에서 핵심 사안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다니엘과 화잇 여사에 따르면 "악인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하리라." 다니엘의 "악인"은 마태복음의 "미련한 처녀들"이며, 화잇 여사는 그들을 라오디게아인으로 규정한다. 우리 주변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어 보일지라도, 지혜로운 자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믿는가? 그러나 우리는 종말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받았다.

세상은 방탕과 하나님 없는 쾌락으로 가득하여, 육신의 안일 속에 잠들어 있다. 잠들어 있다.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먼 훗일로 미룬다. 그들은 경고를 비웃는다. '만물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는 교만한 자랑이 나온다. '내일도 오늘 같고 더 풍성하리라.' 베드로후서 3:4; 이사야 56:12. 우리는 쾌락을 더 깊이 탐닉하겠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요한계시록 16:15. 세상이 조롱하며 '그가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바로 그때에,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외칠 때, 갑작스러운 멸망이 임한다. 조롱하는 자, 곧 진리를 거절하는 자가 방자해질 때, 각종 돈벌이의 일상이 원칙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될 때, 학생이 성경을 제외한 모든 것의 지식만을 열심히 추구할 때,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오신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요동하고 있다. 시대의 징조는 불길하다. 다가오는 일들이 그 그림자를 미리 드리운다. 하나님의 영이 땅에서 물러가고, 바다에서나 육지에서나 재난 위에 재난이 이어지고 있다. 폭풍, 지진, 화재, 홍수, 온갖 형태의 살인이 일어난다. 누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가? 안전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적이거나 세속적인 그 무엇에서도 어떠한 보장도 없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기치 아래로 빠르게 줄을 서고 있다. 그들은 초조하게 지도자들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다. 우리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지켜보고 일하는 이들도 있다. 또 다른 부류는 최초의 대배도자의 지휘 아래 줄을 서고 있다. 우리는 피해야 할 지옥과 얻어야 할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과 영혼으로 믿는 이는 드물다.

위기가 우리에게 서서히, 은밀히 다가오고 있다. 태양은 하늘에서 빛나며 평소와 같이 그 순환을 따라 운행하고, 하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며, 심고 집을 짓고, 결혼하고 시집장가를 보낸다. 상인들은 여전히 사고팔고 있다. 사람들은 서로 밀치며, 최고의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다. 쾌락을 사랑하는 이들은 여전히 극장과 경마장과 도박장에 몰려든다. 극도의 흥분이 팽배하지만, 은혜의 시기는 급속히 끝나 가며, 각자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려 하고 있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다. 그는 사람들이 속고 미혹되고, 바쁘게 얽매이고, 도취되게 하려고 자신의 모든 수단과 세력을 총동원해 일하게 하고 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자비의 문이 영원히 닫혀 버릴 때까지.

수세기를 내려오며 감람산에서 우리 주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엄숙히 들려온다: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생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무거워져서 그 날이 뜻밖에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여,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자로 합당히 여김을 받도록 하라.' 시대의 소망, 635, 636.

이사야 23장에서 시돈은 미국을, 두로는 교황권을 가리킨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던 동시대의 고대 페니키아 도시였다. 그들은 해상 무역과 부,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의 영향력으로 알려져 있었다. 본문에서 시돈과 그곳의 '상인들'은 다시스를 풍족하게 했다. 시돈의 상인들은 '시홀의 씨'를 거래했는데, 그것은 '강의 수확'이며 '강의 열매'이고, 그것이 '그의 수입'이다. 이는 그 도시는 '열국의 시장'이기 때문이다. 모든 선지자들은 세상의 끝을 말하므로, 세상 끝에 '열국의 시장'이 되는 이는 누구인가? 그것은 미국이다.

시호르는 이집트의 강(아마도 나일 삼각주)으로, 세상의 부를 나타내는 데 쓰이며, 이는 이집트가 곧 세상이기 때문이다. 시돈의 '처녀 딸'은 미국의 마지막 세대를 대표하며, 그녀는 일요일 법령에 수반되는 계엄령과 그에 곧이어 뒤따르는 국가적 파멸로 인해 억압을 받는다. 시돈의 그 처녀들은 두로에 관한 질문으로 책망을 받는다. "이것이 미국이 기뻐하던 너희의 즐거운 성읍(왕국)이냐?" "본문에 따르면 홍수 직후 니므롯이 세웠다고 하는, '그 고대가 아주 옛날부터'인 바로 그 왕국이 이것이냐?"

하나님께서서는 "관을 씌우는 도시"인 "두로"를 징벌하시기로 정하시고 "작정하셨다". 교황권에 대한 징벌에는 세계 금융 구조의 붕괴가 포함되는데, 이는 주께서 "상인의 도시"인 "시돈"(미국)을 대적하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의 "견고한 요새들을 멸하라"는 명령, 곧 미국의 경제를 가리키는 그 명령은 안식일 계명이며, 국가적 배도

뒤에는 국가적 파멸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교황권에 대한 징벌은 미국 경제가 파괴되는 데 대한 반응으로 전 세계 경제가 붕괴하면서 시작된다. 시돈은 자신의 경제와 관련된 "집"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 이상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기에 파괴된 금융 구조를 상징한다. 그 "집"에서는 더 이상 투자도 수익도 없다. 그것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그 파괴는 일요일 법령 때에 일어나지만, 일요일 법령 이전에도 이미 심판들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붕괴가 닥치면, 교황권과 상고의 귀족들과 존귀한 무역상들을 거느린 미국, 그리고 다시스의 배들이 "울부짖을" 것이다.

그 구절에서 '타르시스'라는 장소는 고대의 부와 연관되어 있으며, 성경의 타르시스의 배는 경제적 힘의 으뜸가는 상징이다.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갔고, 세 해마다 한 번 다시스의 배들이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를 실어 왔다. 또한 솔로몬 왕은 재물과 지혜에 있어 온 땅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났다. 역대하 9:21, 22.

선박은 경제력을 상징하며, 성경 예언에서 다시스는 경제력을 대표하는 으뜸 되는 선박이다. 다시스의 "딸"로 상징되는 다시스의 마지막 세대는 "강처럼 네 땅을 지나가라"는 명령을 받는데, 그녀가 발견하는 것은 자기 땅에 "더 이상 힘이 없다"는 사실과 두로의 왕국을 두고 더는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찾던 힘은 시돈의 이전 경제력이었지만, 그것은 사라졌다. 이는 바다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진통하지도 않으며 아이를 낳지도 않고, 젊은 남자들을 양육하지도 처녀들을 길러내지도 않는다." 이로써 "바다"의 마지막 세대, 곧 세계 경제의 파괴를 애통해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드러나며, 그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구 역사상 마지막 세대임을 깨닫지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다.

"영원한 광경의 실상이 인간의 감각에 열릴 때, 돈의 가치는 머지않아 아주 갑작스럽게 떨어질 것이다." 복음전도, 62.

그 본문에는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두 가지 "소식" 또는 메시지가 있다. 첫 번째 "소식"은 애굽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소식"은 두로이다. 애굽의 소식은 과거 시제로 제시되는데, 이사야가 "애굽에 관한 소식이 있었을 때와 같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시돈(미국)을 멸하시기 전에 애굽에 대해 어떤 일을 하셨음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일, 곧 애굽의 "소식"을 대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실 때와 관련하여 애굽을 멸하신 것이다. 두 소식은 같은 "소식"이다. 애굽의 소식은 시작이고 두로의 소식은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는 그 주제의 시작 역사로 말세의 십사만 사천과의 언약을 보여 주셨다. 애굽에 관한 "소식"은 바로와 그의 군대가 멸망한 홍해에서의 구원으로, 이는 "두로의 경고"라는 "소식"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최후 구원을 예표한다.

성경에서 묘사된 다시스의 배들을 파괴하는 세력은 이슬람이다. 이슬람에 대한 주제는 나중에 다룰 것이므로, 그 주제는 이후에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본문에서는 그것이 키프로스를 가리키는 고대 명칭인 '깃딤'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시돈과 두로의 멸망이 '깃딤'으로부터 드러난다고 말한다. 이슬람의 상징에는 성경 예언에서 미국의 멸망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묘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사야서에 언급된 날과 해를 따라가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들이 종종 뒤이어 나오는 본문의 예언적 시점을 밝혀 주기 때문이다. 이사야 23장은 22장의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burden' 다음에 이어지며, 그 앞에는 세 가지 'burden'이 있는 21장이 있고, 그 세 가지는 모두 이슬람을 가리킨다. 그 장 이전에는 20장 1절에서, 이후 장들에 제시될 멸망의 예언들이 식별되는 예언적 역사적 배경이 설정된다.

다르단이 아스돗에 왔던 해에(앗수르 왕 사르곤이 그를 보냈을 때), 그는 아스돗을 치고 그것을 취하였다. 이사야 20:1.

'타르탄'이라는 단어는 이름일 수도 있지만, 더 그럴듯하게는 군사 지도자의 직함이다. 타르탄은 이집트의 도시 아스돗에 와서 그곳을 점령했는데, 그때는 아시리아가 점차 세계를 장악해 가던 역사적 시기였다. 아시리아는 바벨론을 상징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은 모두 북쪽에서 온 왕국들이었고, 하나님의 양떼를 '흩어 버린' '사자들'로 여겨졌으며, 둘 다 같은 벌을 받는다. 아시리아가 먼저였고 바벨론이 마지막이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몰아냈도다. 처음에는 앗수르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땅을 벌하리니, 내가 앗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하리라. 예레미야 50:17, 18.

예언적으로는 그들 둘 다 "오만한 앗수르인"이다.

오만한 아시리아인 산헤립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위협했을 때, '그 밤에 여호와와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을 쳤다.' 산헤립의 군대에서 '모든 용사들과 지도자들과 지휘관들이' 끊어졌다. '그래서 그는 낮이 부끄러워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열왕기하 19:35; 역대하 32:21.] 대쟁투, 512.

"타르탄이 아스돗에 이르러" "그것을 취한" 그 해는,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에서 보여 주듯, 교황권에 의한 세계의 점진적 정복을 나타낸다. 조사 심판의 "마지막 날들"이며 곧바로 집행 심판(일곱 마지막 재앙)으로 이어지는 "일요일 법령" 위기의 역사가, 타르탄이 아스돗에 온 "그 해"로 상징된 역사적 배경이다. 그 역사적 맥락이 마련된 뒤에 이사야는 이슬람에 관한 세 가지 멸망의 예언과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에 관한 한 가지 예언, 그리고 두로에 대한 경고를 제시한다. 24장은 일곱 마지막 재앙의 고전적 본보기 가운데 하나이며, 이어지는 25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적 구원을 나타내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큰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잘 알려진 말 가운데 하나를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날에 말하기를, 보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사야 25:9.

십사만 사천은 열 처녀의 비유에서처럼 주님이 더디 오셨을지라도 혼인 잔치에 오실 그분을 기다린 슬기로운 처녀들이다.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인들이다. 지금까지는 이 글이 맥락을 설정해 왔다.

1798년에 나폴레옹은 교황을 포로로 잡아, 요한계시록 13장에 따르면 세상 마지막에 치유되는 그 예언된 치명상을 가했다. 그 시점에 미국은 다니엘서 2장, 7장, 8장, 11장과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6장, 17장, 18장에 따른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 자리잡았다. 그때부터 미국의 공화주의 뿔과 개신교의 뿔(재림주의) 모두가 교황권이 누구인지 잊었다. 1798년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주권 국가로 인정한 첫해였고, 또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역사 속에 도래한 해이기도 하다.

그 당시 개신교도의 '좌우명'은 "성경,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었다. 개신교도들은 자신들을 성경만을 옹호하는 자로 규정했고, 둘째 천사가 도래했을 때 재림운동이 그들의 역할을 이어받으면서 그 '좌우명'을 받아들였으며, 이후 '책의 백성'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들은 윌리엄 밀러의 사역을 통해, 바르게 적용하기만 하면 듣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성경을 열어 줄 일련의 규칙을 받았다. 우리가 셋째 천사의 메시지를 전하려면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고 영감이 말하는 것이 바로 밀러의 예언 해석 규칙이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진리의 빛이 타오르는 등불처럼 나아가고 있으며, 빛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여, 자신들이 낯선 자의 음성이 아니라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들은 밀러 선생이 채택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예언들과 예언적 연대에 관한 견해'라는 제목의 소책자에서 밀러 선생은 성경 연구와 해석을 위한 다음과 같은 간단하면서도 분별력 있고 중요한 원칙들을 제시한다:

1. 성경이 제시하는 주제와 관련하여 모든 단어는 각기 합당한 의미를 지녀야 한다.
2. 성경 전체는 필요하며, 부지런한 적용과 연구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3.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성경에 계시된 어떤 것도 감추어질 수 없고, 감추어지지 않을 것이다.
4. 교리를 이해하려면 알고자 하는 주제에 관한 모든 성경 구절을 함께 모으고, 그다음 각 단어가 합당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라. 그리고 모순 없이 당신의 이론을 세울 수 있다면, 당신은 잘못될 수 없다.
5. 성경은 그 자체가 규범이므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내가 어떤 교사에게 의존해 그가 내게 해석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가 그 의미를 추측하거나, 자신의 분파적 신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거나, 지혜롭게 보이려 한다면, 그의 추측, 욕망, 신조, 혹은 지혜가 나의 규범이 되고, 성경은 나의 규범이 아니다.

위의 내용은 이 규칙들의 일부이며,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 우리는 모두 제시된 원칙들을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참된 믿음은 성경에 기초한다. 그러나 사탄은 성경을 왜곡하고 오류를 들여오기 위해 수많은 계락을 사용하므로,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기 위해서는 큰 주의가 필요하다. 이 시대의 큰 미혹 가운데 하나는 감정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그 말씀이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진술을 무시하면서도 스스로 정직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은 감정 외에는 믿음의 토대가 없다. 그들의 신앙은 흥분에 의존한다. 그것이 그치면 그들의 믿음도 사라진다. 감정은 쪽정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알곡이다. 그리고 선지자가 말하되,

‘쭈정이가 알곡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누구도 자신에게 없었고 얻을 수도 없었던 빛과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죄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세상의 표준에 맞추고자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그들에게 제시하는 진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한다. 그들의 이해에 이른 진리, 그 영혼 속에 비친 빛은 심판에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모든 시대를 통해 비쳐 온 누적된 빛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거룩함의 길은 세상과 같은 수준에 놓여 있지 않다. 그것은 높이 올려진 길이다.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주의 계명의 길을 달린다면,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과 같아서, 완전한 날이 이를 때까지 점점 더 빛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884년 11월 25일.

윌리엄 밀러의 규칙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예언의 열쇠’ 카테고리의 ‘윌리엄 밀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 우리는 모두 ‘밀러 신부’의 예언 해석 규칙에 제시된 원칙을 유념하는 것이 좋다. 개신교의 뿔에게는 우리가 성경이라 부르는 거룩한 문서가 주어졌고, 그 안에 담긴 원칙을 수호하고 전파할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그 거룩한 문서들의 의미와 의도를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도 함께 주어졌다.

공화주의의 뿔에게는 우리가 헌법이라고 부르는 신성한 문서가 주어졌고, 그 안에 담긴 원칙을 수호하고 증진할 책임 또한 부여되었다. 공화주의의 뿔에게는 또한 그 신성한 문서의 의미와 의도를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이 주어졌다. 헌법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 부여된 그 규칙은 권리장전으로, 권리장전의 최초 규정들에 헌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명시해 두고 있다. 권리장전에 열거된 제1수정조항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다.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또는 국민이 평화적으로 집회하고 정부에 불만의 시정을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1조

일요일 법령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첫 번째 조항에 대한 공공연한 공격이며, 그 조항은 일요일 법령 아래에서 폐지된다. 그러므로 이는 헌법의 종말, 성경 예언에서 여섯째 왕국으로서의 미국의 종말, 그리고 그때 큰 외침으로 셋째 천사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들에 대한 박해의 시작을 알린다.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선포하고 수정헌법 제1조와 헌법의 파괴에 항의하는 이들은, 거룩한 문서를 수호하도록 임명받았으며 그 문서를 수호하는 거룩한 규범을 지키고 적용해야 할 자들에 의해 박해를 받는다. 이는 어린양 같은 땅의 짐승의 두 뿔의 평행한 역사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하나의 예시이다. 미국 헌법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아버지’ 밀러와 평행을 이룬다. 밀러에게 사용된 ‘아버지’라는 호칭은 지도자를 지칭하기 위한 것이지, 가톨릭 사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영적 지도자라 자처하는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금한다. 밀러주의자들은 흔히 그렇듯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불린다. 이 구별을 놓치면, 엘리야의 메시지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 반대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린다는 의미의 일부를 놓치게 된다.

이사야 23장의 미국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이며, 빠르게 다가오는 일요일 법령에서 헌법을 뒤엎을 때까지 그렇게 남아 있다. 여섯째 왕국은 예언적 칠십 년, 곧 한 왕의 날들 동안 통치한다. 칠십 년 동안 통치한 왕국(왕은 곧 왕국이다)은 바벨론이었다. 그 칠십 년 동안 국가의 별은 바벨론 정부였고, 교회의 별은 갈대아인이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십사만 사천을 상징한다. 두 별과 하나님의 백성은 다니엘의 증언 속에 함께 나타나 있다. 바벨론에서의 칠십 년 포로기는 이사야가 사용한 한 왕의 날들이며, 이를 통해 미국의 예언적 역사와 재림운동의 역사를 1798년부터 일요일 법령까지로 규정한다.

미국의 두 별 각각에 대한 예언적 역사의 흐름을 식별하면, 끝과 시작을 고찰할 수 있으며, 두 별이 서로에 대한 증인으로서 다른 별의 특성을 식별하게 해 준다. 결국 그 별들은 모두 같았다. 다니엘서에는 별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은 꺾였고, 꺾인 별에서 자라난 별들도 있었다. 다니엘서의 어떤 별들은 서로 크기가 같지 않았고, 다른 것보다 나중에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의 두 별은 그렇지 않다. 그 두 별은 동일한 역사 속에서 서로 병행하며 같은 이정표들을 만들어 내지만, 목적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 또한 그 역사 속에는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유의점들이 있다.

재림운동의 초기에 빌라델비아 교회로 대표되던 예언적 역사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로 변화가 있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라오디게아로 대표되는 예언적 역사로부터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러한 이해의 빛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금 이때 인봉이 풀리고 있는 것의 일부이다.

그리고 "칠십 년이 끝난 후"에 교황은 "노래"할 것이고, "잊혀진" "음녀"는 기억될 것이다. 그녀는 일요일 법령 때 "기억"된다. 그때의 쟁점은 태양을 숭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이 인류에게 "기억하라"고 명한 그 날을 숭배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바벨론의 칠십 년 통치의 역사가 1798년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미국 역사를 표상한다는 것을 밝혔다. 앞선 글과 하박국의 도표들에서도 우리는 애굽에서의 포로됨과 그 해방이 또한 미국과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표상함을 확인해 왔다. 바벨론, 애굽, 재림운동, 미국의 이 네 역사가 이런 선들 위에 더할 수 있는 유일한 선들은 아니지만, 그 네 선에 최초 언급의 원칙을 적용해 보면 정말 놀랍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훗날 이사야 23장의 역사를 더 다룰 때 이어서 살펴보려는 내용을 간단하고 부분적인 한 가지 예로 보여 주겠다.

바벨론의 역사는 초기에 회심한 왕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악한 왕으로 끝난다. 바이든이든 트럼프이든 상관없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통치자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일요일 법령의 때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 지도자에 관해 확실한 것은 그가 악한 지도자라는 점이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그 자체였고, 바벨론의 폭군이었으며, 서슴지 않고 세 명의 의로운 사람을 불 속에 던질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결국 다니엘의 하나님께 회심했다. 그러나 마지막 지도자 벨사살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악한 왕이었다. 예언 속에서 미국은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어린양으로 시작한다. 마지막에는 미국이 용처럼 말하게 될 것이다. 이 역사선에서 그리스도에서 사탄으로의 변화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차이로 나타난다.

"벨사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받았다. 그는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았다. 그 교만한 군주가 자랑하던 지성이 그것을 주신 분에 의해 거두어지는 것도 보았다. 그는 그 왕이 왕국에서 쫓겨나 들의 짐승과 벗이 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오락과 자기 과시를 사랑하는 벨사살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들을 지워 버렸고, 느부갓네살에게 엄중한 심판을 가져왔던 것과 유사한 죄들을 범했다. 그는 은혜로 주어진 기회들을 허비했고, 진리를 알게 되도록 손이 닿는 기회들을 사용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위대하지만 어리석은 그 왕이 무심히 지나쳐 버린 것이었다." *바이블 에코*, 1898년 4월 25일.

사악한 벨사살이 어리석은 왕이었다는 점에 주목하라. 그는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과 같은 심판을 받았는데, 두 심판 모두 레위기 26장의 "일곱 배"로 표현되었다. 느부갓네살은 들에서 짐승처럼 2,520일을 살았고, 이는 성경의 7년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에 대한 심판도 벽에 쓰인 글로 2,520을 나타낸다. 차이점은 느부갓네살에게 내린 심판은 그를 회심시켜 지혜로운 왕으로 만들었지만, 벨사살의 심판은 어리석은 왕에게 임했다는 것이다.

바벨론의 첫 통치자에게 표상적으로 임했던 것처럼, 그 마지막 통치자에게도 신성한 감시자의 선고가 임했다: "왕이여, . . . 네게 말하노니; 왕국이 네게서 떠났다." *다니엘 4:31. 선지자와 왕들*, 533.

마지막 대통령에게 있어 벽에 쓰인 글씨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벽'으로 규정한 제1수정헌법이며, 마지막 어리석은 왕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는 일요일 법령 때 북방 왕에 의해 이루어지는 '백성의 흠어짐'을 나타낸다. 그 흠어짐은 일요일 법령에 뒤이어 닥칠 국가적 파멸이다. 여섯 번째 나라는 헌법을 집필한 그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남긴 교훈을 잊었다. 그 헌법은 부패한 교회뿐 아니라, 그 부패한 여인이 동침했던 폭군적 유럽 왕들로부터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교황권과 유럽의 왕들을 거부한 자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교황권의 암흑 아래 1,260년의 흠어짐에서 나온 뒤의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그러한 유형의 폭정에 대한 보호 장치가 새 헌법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지혜로운 아버지들이었고, 어린양 같았지만, 마지막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그는 용처럼 말할 것이다. 그 아버지들은 흠어짐에서 나왔고, 그 아들은 다시 흠어짐으로 돌아간다. 두 경우 모두에서 폭군은 처음의 교황권과 마지막 교황권이다.

처음 왕 느부갓네살과 마지막 왕 벨사살 위에 임한 심판의 상징은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 흠어짐이었다.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삶으로 겪었고, 벨사살은 죽던 바로 그 밤에 그것이 그의 묘비명처럼 벽에 기록되었다. 공화주의의 별의 시작의 상징은 북방 왕의 속박에서의 탈출이었고, 그 끝의 상징은 북방 왕으로 말미암은 포로됨이다. 일요일법령은 그것이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 죽는 "바로 그 밤"이다. 벨사살, 느부갓네살, 그리고 공화주의의 별의 시작과 끝이라는 네 가지 예증 모두에서, 레위기 26장의 2520이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제시된다. 그것은 알파와 오메가의 서명을 나타낸다.

윌리엄 밀러가 발견한 최초의 "시간 예언"은 레위기 26장의 2520이었다. 그것은 예수께서 밀러의 사역을 통해 놓으신 기초의 첫 돌이었다. 또한 그것은 1863년에 재림주의에서 처음으로 제쳐진 기초적 진리이기도 했다. 밀러의 진리의 돌들이 모두 기초에 놓였을 때,

그 진리들은 하박국의 두 표, 곧 1843년과 1850년의 개척자 도표들에 의해 대표되었다. 그 두 표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고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대표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명명하신 백성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나타낸다.

라오디게아 상태의 재림운동이 끝날 때, 곧 일요일 법령이 시행될 때 주님께서 그것을 그분의 입에서 토하여 내실 때, 벽에 쓰인 글씨는 그 두 장의 거룩한 개척자 도표이다. 그들의 역사 초기에 경고의 메시지에서부터 유익을 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도표들을 읽지 못한다....

1837년 미국의 금융 위기는 여러 경제적 요인과 정책, 그리고 투기적 활동이 결합되어 촉발된 복잡한 사건이었다.

투기 거품: 1837년에 이르기까지의 몇 년 동안, 국가의 서부 확장에 부분적으로 힘입어 토지와 투자에서 투기 붐이 일어났다. 특히 서부 개척지에서의 토지 투기는 부풀려진 토지 가격과 과도한 차입으로 이어졌다.

완화된 신용공급과 투기적 대출: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종종 충분한 담보 없이 대규모의 신용과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쉬운 신용 접근성은 투기 광풍을 부추기고 금융 불안정의 위험을 높였다.

은행의 과도한 확장: 은행들은 운영을 급속히 확대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금과 은 같은 금속화폐보다 더 많은 지폐(은행권)를 발행하곤 했다. '와일드캣 बैं킹'으로 알려진 이러한 관행은 규제되지 않고 신뢰성이 낮은 통화가 과잉 유통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잭슨의 경제 정책: 앤드루 잭슨 대통령의 정책은 위기를 악화시키는 데 한몫했다. 그는 1836년에 경화령을 발표하여 국유지는 지폐가 아닌 경화(금과 은)로 구입하도록 요구했다. 이로 인해 지폐를 경화로 바꾸려는 수요가 급증했고, 금융 압박과 은행 파산을 초래했다.

국제적 요인: 미국의 위기는 국제 경제 여건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영국 경제의 침체로 미국산 상품에 대한 수요와 수출이 감소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들에 영향을 미쳐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데 기여했다.

공황과 예금인출 사태: 1837년 5월, 은행 파산과 신용 수축을 포함한 일련의 금융 충격으로 인해 투자자와 예금자들 사이에 공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공황은 연쇄적인 예금인출 사태와 심각한 신용 수축을 촉발했다.

통화량 축소: 은행들이 파산하고 신용이 경색되면서 경제 전반의 통화량이 크게 축소되었다. 이러한 통화수축은 경제적 어려움을 악화시키고 경기침체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은행 파산, 실업, 소비 지출 감소, 그리고 경제 전반의 침체로 특징지어지는 심각한 경기침체가 초래되었다.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와 우리의 과거 역사 속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를 제외하고는." Life Sketches, 196.